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임실군, 농업농촌정착 국비사업 총 11억원 투입

임실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올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9억원, 국비사업으로 2억여원 등 총 11억여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귀농·귀촌인의 입실로의 전입을 적극 추진 중인 군은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촌지역 인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지난 2016년에는 537명, 2017년에는 320명, 2018년 504명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7개 사업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면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지원, △현장실습비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정착금 지원, △입실거주공간 지원,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하여 도시민들



임실군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 귀농귀촌하기 좋은 명소로 임실군을 찾아 인생 제2막으로 남은 여생을 청정지역 임실에서 즐기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주간 읍면 및 (사)임실군농업농촌지원센터와 임실군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소득사업 지원과 선도농가에서의 현장실습 및 교육훈련비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소득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노력 중이다.

국비사업으로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하여 도시민들

△체류거주공간조성, △도시민 상담 교육 과 도시민 유치 활동과 마을 꽃길 가꾸기, △한마음대회 등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활동도 지원한다.

도시민 유치 및 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 컨설팅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다양한 정책을 타 시군에 비해 열정적으로 추진 중이다.

심 민 군수는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임실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지원, 소득사업 지원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귀농·귀촌인들에게 살고 싶은 임실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젊은 농업인, 청년창업농 지원 신청

### 순창군, 최장 3년 월 80~100만원 지급

순창군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분야 진출 확산을 위해 청년창업농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청년농업인의 지원정책에 주력할 계획인 가운데 청년창업농 지원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농 지원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책과 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 자금과 기술, 경영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게 되면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농 지원 자격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1979.1.1.~2001.12.31. 출생자) 청년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는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오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1차 서류평가를 거쳐 면

접과 후계농 선정심의회 등의 심의 후 4월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최종 선정되면 독립경영 년차에 따라 최소 960만원에서 최대 3,240만원까지 영농정책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귀농 창업 자금과 농진청 농정원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해 우선지원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청년 창업농으로 11명을 선발하여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구연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정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현재 국비로 선정되는 청년 창업농 대상자가 적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매년 20여명씩 추가로 선발해 올 하반기부터 월5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농촌민박 특별안전점검

남원시는 동절기를 기해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최근 강릉펜션사고 사례와 같은 가스누출사고 발생 우려 등 농촌관광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민박 285개소와 체험마을 16개소 등 총 30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농촌관광 숙박시설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3차에 걸친 안전점검을 진행, 1차는 사업자가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2차는 행정에서 전수조사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할 계획이며, 1·2차 안전점검표를 분석,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소방서, 일자리경제과 등)과 합동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난방(연소)시설, 화재 안전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전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원시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우수농촌민박 6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7년 12월 협의회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머물고 가는 농촌관광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농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인 경우만 민박운영, 농어촌민박 표시부착 등을 강화해 농촌민박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재지정되며 여성이 살기좋은도시 실현과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목표를 '여성 살기 좋은 도시, 더 행복한 남원'으로 정하고 시민참여단 2기를 구성해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여성취업 지원, 경제 사회적 평등실현,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교육, 친정보내주기,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학습·심리·정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문화도 조성을 위해 노암동 아파트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하반기에 개소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로 운영,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지역돌봄공동체를 구축하고, 다자



남원시가 여성이 살기좋은도시 실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넷째 이상 자녀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북카페, 댄스연습실, 자치활동 공간을 통해 방과후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체육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했다. 열린 어린이집 자체형 10개소를 선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한다.

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가맹점 172개소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에 전년도 보다 113억원이 증가한 760억원을 편성했다.

노경희 여성가족과장은 "시에서는 아동에서 노인까지 포용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남원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금연 사업을 추진해 왔다

### 남원시보건소, 금연클리닉운영 홍보

남원시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등 적극적인 금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금연 성공률 43%를 달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금연클리닉 80회, 흡연예방 인형극 16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 6,800회 등의 실적을 이루었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의 폐해와 유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낮 시간 경제활동을 하는 직

장인, 기업체, 관공서, 등은 찾아가는 이동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금연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1:1 개인상담과 교육, 흡연자 체내 일산화탄소검사 및 니코틴검사, 금연보조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을 추후관리까지 해주고 있다.

공익수 건강생활과장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금연 클리닉을 더욱더 강화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과 재흡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회의 첫날인 10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채택하고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시정보고를 청취했다. 11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윤지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남원시의회는 2019년 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